

2023년 경기아트센터 <제3회 창작희곡공모> 심사총평

경기아트센터에서 모집하는 세 번째 희곡공모가 지난 11월에 있었습니다. ‘희곡부터 공연까지’라는 공고문구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공모는 2024년 경기아트센터의 레퍼토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공모가 2020년 첫 번째 공모와 올해 초에 있었던 두 번째 공모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경기도’라는 구체적인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모에서 경기도를 배경으로 새롭고 다양한 소재들을 발굴하고 동시대를 반영하는 창작극을 무대에 올리하고자 하는 기관의 바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공모기간과 접수기간이 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희곡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심은 외부 심사위원 6인이 블라인드로 각자 별도로 희곡을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다음 10편의 희곡들이 2차(본심)의 후보 작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가나다 순서)

- 경기 순수이성비판
- 나는 재인청 춤꾼이다
- 나(의 엄마)에 대하여
- 내손라구역
- 무명(無名)
- 부인의 시대
- 우체국에 김영희 씨
- 인형술사
- 하고 싶은 말을 했기로서니
- 화성골 소녀

이후 본심은 내부 심사위원 1인이 추가된 7인의 심사위원단이 모여 10편의 희곡을 검토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선정된 작품의 경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재개발, 미군 주둔지, 역사 및 문화재’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다뤄졌습니다. 재개발은 지역민들 사이의 이해관계나 갈등보다는 서울과 경기도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는 작품들이 다수였습니다. 미군 주둔지를 다루는 작품들은 주로 약자인 여성과 이들을 착취하는 남성의 관계를 극화하고 있었습니다. 역사를 배경으로 삼는 극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경기도를 주제로 독특한 작품들을 볼 수 있다는 즐거움이 컸지만, 경기도라는 넓은 지역이 품을 수 있는 다채로운 이야기들이 다소 한정적인 이야기로만 축소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최종 선정작 후보로 <부인의 시대>와 <우체국의 김영희 씨>를 놓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부인의 시대>는 나이 든 여자를 뜻하는 ‘부인’과 없다, 아니다를 뜻하는 ‘부인’이라는 중의적 의미를 활용하여 철거와 재개발로 지역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성, 계층의 관점 안에서 짜임새 있게 그리고 있습니다. 또한, 원주민이 해당 지역에서 살아나갈 수 없다는 점을 연극적 장치로서 사라지는 것으로 형상화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체국에 김영희 씨>는 한 지역의 소통의 장소였던 우체국을 소재로 사용한 지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점차 없어지고 있는 우체국이라는 작은 장소를 경기도와 결합하여 지역의 정서를 따뜻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공간 속에서 인물들의 생생함을 경제하게 드러내는 방식 또한 인상적이었습니다. 두 작품 모두, 좋은 작품이지만, <부인의 시대> 오늘날 경기도민의 고민을 담은 동시대적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여기고, 이 작품을 최종 선정작(대상)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우체국에 김영희 씨>를 우수상으로 정했습니다.

공모에 참여해주신 모든 극작가님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위원 일동